

축 사

우리 종단은 종헌에 중명을 조계종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조계종이 선종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수행법의 요체가 바로 간화선(看話禪)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간화선을 불교의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말하고, 21세기 문명사회와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끌 대안사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간화선 수행의 전통을 오롯이 갖추고 있는 우리 조계종이 이와 같은 문명사적 역할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래의 성품자리를 바로 보고 단박에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는 간화선은 온갖 말의 향연이 끊어지고, 마음속의 갖가지 번뇌가 끊어진(言語道斷, 心行處滅) 자리에서 화두라는 의문덩어리 하나에 집중할 때 그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에 온갖 주의 주장과 샅된 이론들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화선의 수행을 통해 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即心是佛),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인 평온한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이 21세기 문명을 이끌 대안 사상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21세기를 맞아 간화선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말을 따라 가고, 이해가 수반되어야 믿음을 갖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가에도 불어와 수행풍토가 어지러워지고, 여러 외래선(禪)이 많이 들어와 이제 스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가 이런 수행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종단이 간화선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화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진 결과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생 수행에 매진한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더하여 사찰의 오랜 전통인 객실문화가 사라짐에 따라 이와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 전통의 수행풍토가 어지러워진 현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간화선을 중흥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해 봄, 봄꽃 향기와 함께 간화선의 향연이 열렸습니다. 조계

종과 전국선원수좌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복지회가 주관한 ‘간화선 대법회’가 그것입니다. 2013년 4월24일부터 5월2일까지 9일간 서울 조계사에서 거행된 이 법회는 ‘간화선 중흥’과 ‘수좌복지 외호기금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선(禪)이 21세기 문명을 이끌 대안사상이라고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간화선을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 노력이 없이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갈 기회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수행을 이끌어가는 스님들이 올곧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풍토를 만드는 것 역시 간화선 중흥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간화선 중흥과 수좌복지 외호기금 마련을 위한 간화선 대법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회에는 진제 법원 중정예하를 비롯하여 석종사 금봉선원장이신 금아 혜국 대선사, 용화사 회주이시자 원로 위원이신 미룡 월탄 대종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이신 학산 대원 대선사, 축서사 문수선원장이신 금곡 무여 대선사, 덕숭총림 방장이신 송원 설정 대종사, 지리산 상무주암 수좌이신 두엄 현기 대선사, 죽림정사 조실이시며 원로위원이신 불심 도문 대종사, 그리고 문수산 금봉암주이시고 원로위원이신 은암 고우 대종사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홉 분의 선지식들께서 법문에 임해주셨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9일 동안 이어진 법석에서 스님들께서는 간화선을 통해 생의 의문을 해결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주인공의 진면목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면목은 돈이나 권력,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것이며 간화선을 통해 생각의 한계가 끊어질 때 문득 생사윤회를 벗어나 진실한 본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르침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간되는 이 책은 바로 그 법문을 모은 간화선의 정수(精髓)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대중을 향해 열린 진리의 문이자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누가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이 문을 통해 본래 청정한 자성의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58.1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